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장소의 신화

사고들의 유한적 표상과 '민속건축'에 대한 소고

卞 泰 浩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1. 서론: 현대사회와 존재인식의 모호함

우리가 만들어 내고 또 그 속에 존재하는 사회(society)란 인간이 지닌 본성(human nature)에 대한 표현이란 점에서 모두 동일한 개념일 것이나, 그것이 구성하는 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어느 하나 동일한 것은 없다. 특히, 이러한 표현적 유형들은 바로 그 시대와 장소의 구성원이 지닌 이상과 가치체계에 의해 다양한 형태와 틀을 지니게 되며, 마치 건조환경에서 어떠한 형태가 지닌 기호(sign)의 특성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의사전달되어 질 수 있듯이, 그러한 형태와 틀이 지닌 상징적 의미들은 다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고 속에서 '소속과 존재인식'(sense of belonging and existence)을 제공하게 된다. 이런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볼때, 지난 현대건축이 만들어낸 사회환경의 모순적 현상 대한 비평적 견해는 50년대 이후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예를들어 클라프(O. Klapp), 랠프(E. Relph) 그리고 버티머(A. Buttimer)의 경우,¹⁾ 금세기의 과학적 현대화 과정에 따른 지리적 이동의 증가와 '장소성 상실'

(placelessness)은 '자기인식'(sense of identity)이 약화되어진 뿌리없는 인간을 만들어 내었으며, 더욱이 장소의 고유한 문화적 그리고 물질적 차이성의 침식은 물론 장소를 통해 얻어지는 자기인식의 모호함만을 만들어 내었다고 비평하고 있다.

이러한 비평과 더불어, '존재'나 '자기인식'의 상실에 대한 형태적 회복의 노력은 건축과 도시설계 분야에서도 금세기 중엽이후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그들의 공통된 관심은 무엇보다 세계문화의 동질화에 대한 거부와 상실되어 가는 전통적 가치의 연맥, 특히 '고전'(classical)이나 '민속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에 대한 높은 관심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들어낸 유형의 성격은 심미적 상업가치로의 전통적 형태나 양식적 기호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호론의 일차원적 해석에 바탕을 둔 모호한 형상적 이미지만을 표현해 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피상적 표현방식은 역사를 심미적 모방대상으로만 해석하는

1. O. E. Klapp. *Collective Search for Ident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9. E. C.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1976. A. Buttimer and D. Seamon (ed.). *The Human Experience of Space and Place*. London: Croom Helm, 1980.

편협된 이해 때문이며,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양식적 측면에서 보다 인간의 '자기인식'에 대한 표상체로의 '민속건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재이해하여 보려한다.

다시말해, 전통건축에 대한 공간의 형식적 특성이나 형태의 심미적 측면에서 보다, 그것이 현대건축의 설계방법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현대건축이 상실한 전통적 가치의 계승과 연맥을 위해서 무엇이 이해의 대상으로 지금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논해 보려 한다. 이러한 진행과정으로 필자는 논고를 4단계의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 '현대 절충주의'에 대한 비평적 재이해, 2. 건조환경과 자기인식에 관한 심리학이나 인류학의 몇몇 연구들, 그리고 '민속건축'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에 대한 소개, 3. '민속건축'과 그를 구성하는 최소 형태단위인 'tectonic form'의 중요성, 4. 집단의 존재의식에 대한 표상, 즉 '신화적 표상' (mythical representation)으로의 '민속건축'에 대한 재이해.

2. '현대 절충주의'건축에 대한 비평적 재이해

건축에 있어 역사에 대한 모방의 대상으로, '민속건축'이 지닌 절대적 가치보다 현대 (contemporary)라는 한정된 시간에서의 상대적 의미를 재평가하려는 것은 먼저 지금의 건축 - '현대 절충주의'(Modern Eclecticism) 혹은 '현대 역사주의'(Modern Historicism) - 이 보여주는 양식적 경향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서양의 건축역사를 통하여 어디에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그들과 다시 어떠한 표현 방법적 차이를 보이는지 논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이러한 피상적 표현경향의 근원에 대한 이해는 가깝게는 금세기 초 '현대건축'(Modern Architecture)의 진행과정을 살펴봄으로 가능할 것이다.

세계 2차대전 이후 '현대건축'은 그것이 지닌

이념의 상업화보다 특정 자본계급이 지녀온 절대적 가치와 불 균형적 사회구조의 평준적 재구성, 특히 통일된 사상과 양식의 표현 그리고 실용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사회문화적 경험의 대중적 비 구획화를 이루려는 의도가 깊었다. 이러한 상업화를 통한 해방이 - 상품의 표준적 대량생산과 선택의 자유 - 사회적 평등주의를 가져 오리라는 '현대건축'의 사회주의적 이상들은 40년대 후반부터 과학에 대한 강한 믿음과 함께 아이로닉하게도 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되었으나, 대중의 삶에 대한 진정한 민주화보다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계산되어진 광대한 소비시장의 창조만을 이루어 낸 듯하다. 6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사회-경제적 전략들은 '현대 절충주의'를 형성하게되는 문화의 소비화를 가중시켰으며, 다시 '민주적 다원주의'(democratic pluralism)의 도덕적 구실 하에서 끊임없이 자연화 되어 진다. 이 경우, '현대 절충주의'의 양식적 의도는 지난 '현대건축'이 지닌 형태의 비-의사전달성과 표현의 독단적 단일성에 대비된 다양한 문화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나, 그들이 사용한 양식의 은유적 기술과 인용적 방법은 그 유형의 혼돈된 다양성을 생산해 내게 된다. '모더니즘'은, 다시말해, 50년대에 들어와 그것이 지닌 사회해방에 대한 '이상향'(idealism)은 자본중산계급의 인본주의에, 60년대에는 최 첨단의 공학적 환상에, 그리고 70년대에는 양식적 절충주의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현대건축'이 지녔던 비평적 시각들은 사회일반의 신념-빈곤과 무차별의 정신으로, 그리고 그 집단적 신화성은 끊임없는 개인적 논리와 인간의 문제에 대한 비-애정적 회피 속에서 분열되어 진다. 그리고 마침내 회화적 양식의 절충은 잃어버린 가치의 재발견과 미래에 대한 조명보다는 현대건축의 문화적 상황에 불확실성과 상업주의만을 가중시키게 된 듯하다.²⁾

2. '현대'(Modern)건축의 비평적 진행과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Paul Greenhale. (ed.), *Modernism in*

이러한 현대의 양식적 절충현상이 라이트(Wright), 알토(Alto), 그리고 가깝게는 벤츄리(Venturi), 무어(Moore), 그레이브스(Graves) 등을 통하여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대 절충주의’ 건축이 이론적 기초로하는 세가지의 독립된 요소를 건축 비평가 데메트리 포피리우스(Demetri Porphyrios)는 ‘실용주의’(pragmatics), ‘기술’(technics), 그리고 ‘의미론’(semantics)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세 요소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환상과 같은 목적달성의 게임속에 휘말려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대의 저속한 공학적 생산물에 도덕적이고 미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원주의 건축가들이 사용한 모순된 두 기술적 작용방법은 “현실에 대한 미학화”와 “의사전달적 과정의 미학화”로 규정, 설명될 수 있다.³⁾ 여기서 첫째의 미학적 기술은 일찍이 ‘다다주의자들’(Dadaists)의 깊은 도덕적 관심과 함께 잃어버린 순수성(purity)을 회복하려는 시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나, ‘현대 절충주의’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비적 생산물의 제공을 통한 이윤의 최대화를 얻으려는 경제적 전략의 구체적 시도에 불과하였으며, 둘째의 미학적 기술 또한 광고방식과 유사하게 삶의 경험과 인식보다는 암호와 같은 간략하고 일방적인 메시지만을 통하여 묘한 당혹감과 지루함을 그리고 마침내 값싼 문화의 환상만을 제공하고 있는 듯하다.⁴⁾ 어떠했든,

Design. London: Reaktion Books Ltd., 1990 참조.

3. Demetri Porphyrios. "Classicism is not a Style." *Architectural Design*, vol. 52, 1982, p. 51-57.. "first, that of aestheticising the real; second, that of aestheticising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4. Ibid., p.51-53. Demetri Porphyrios는 ‘현대 절충주의’가 단지 이론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세가지의 독립된 건축적 경험의 요소를 실용적(pragmatics), 기교적(technics) 그리고 의미론적(semantics)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다시 표현방법에 있어서 지금의 현대건축이 이전으로부터 계승한 모순적 요소들을 아래의 두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a) the semantically mute elements of industrial production - inherited from Modernism, and (b) the semantically expendable historicist signs of industrial kitsch - inherited from Modern Eclecticism."

‘현대건축’이 만들어낸 표준적 건조환경에 대한 여러 각도의 비평들과 함께 양식적 다원주의에 가장 큰 도덕적 구실과 표현적 동기 제공은 금세기 중엽이후 꾸준히 발표된 건조환경과 인간의 상징체계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회, 심리학적 연구들일 것이다.

3. 인간의 상징체계와 ‘민속건축’

3-1. 건축환경과 ‘자기인식’

인간의 생활형식에 있어서 건조환경이 미치는 영향, 특히 물리적 환경의 특성과 ‘자기인식’ 혹은 심리적인 상징체계와의 관계는 심리학이나 인류학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Abraham Maslow)의 ‘인간의 욕구동기’(hierarchical motivations of human needs)에 대한 6단계 모델은 물리적 환경과 그의 본능적 욕구인식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⁵⁾ 건축환경을 통한 인간의 ‘자기인식’에 대한 또다른 연구는 건축물과 심리적 상징성과의 관계에 대한 쿠퍼(C. Cooper)의 조사에서,⁶⁾

5. 아브라함 매슬로는 인간의 심리욕구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아래 열거는 심리욕구의 강함에서 약함으로의 순서를 나타낸다. "(a) physiological needs, such as hunger and thirst; (b) safety needs, such as security and protection from physical harm; (c) belonging and love needs, such as membership in a group and the receiving of affection; (d) esteem needs, those desires of an individual to be held in high value by himself and herself and others; (e) actualization needs, representing the desire to fulfill one's capacities; and (f) cognitive aesthetic needs, such as the thirst for knowledge and the desire for beauty for its own sake." Abraham Maslow. "Theory and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1943, p.370-396.
6. Cooper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건물을 선택하거나 변형하기도 한다고 조사-설명하고 있다. Clare Cooper. "The House as a Symbol of the Self." in J. Lang, C. Burnette, W. Moleski and D. Vachon (eds.),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Architecture and the Behavior Sciences*, Stroudsburg, Pennsylvania: Dowden, Hutchinson &

그리고 쿠퍼의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친 심리학자 칼 융(Carl G. Jung)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Jung은 사람들이 과거의 시간과 그들을 연결시키는 종합된 무의식의 세계를 지니고 있어, 이러한 연계속에서 그들 자신을 위해 선택되어진 형태들을 구성과 재구성을 통해 그들의 '개성'(personalities)과 '바람'(aspiration)을 표현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⁷⁾ 래코프(R. Rakoff)의 주거의 의미에 대한 조사나 기어츠(C. Geertz)의 문화의 해석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건물을 통해 문화적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행위들이나 물리적인 안식처를 위해 공간을 제공받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여러 의미들을 내포시키기도 하며, 이러한 의미들은 다시 건물의 도구적 혹은 수단적 사용을 넘어서 그 세계의 사회적, 문화적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 진행과정을 반영해 내기도 한다. 그래서 건축물은 사람들의 자기인식과 더 나아가 존재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문화적 영역의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그들의 감정, 사고방식 그리고 믿음, 의지 등을 그 형태와 양식 그리고 실내, 외 장식 등을 통해 표상해 내는 상징적 세계로 이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⁸⁾

건축물을 통한 상징적 의미체계에 대한 사회, 심리, 인류학적 연구들은 이 외에도 수나 방법에 있어서 다양하며, 이러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내용은 건축환경이 과학 분석적 기능들의 총족에서 보다, 인간이 지닌 상징적 의미들의 표현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특히 건축환경을 통한 자기인식의 상징적 표현방법이 오랜시간을 거치면서 문화의 한 단면, 즉 특정

지역 혹은 장소에 따른 문화의 차이를 만들어 내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건축물들은 그 속에 담긴 여러 의미들의 표상적 차이로 인해 특정 집단이나 사회의 전통적 문화속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2. 집단의식의 표상과 '민속건축'

서양의 경우, 이러한 역사적 건축물 중 '고전 건축'(Classical Architecture)에 대한 이해의 노력은 건축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온 반면, '민속건축'(Vernacular Architecture)이 지닌 공간이나 형태의 형식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민속학이나 인류학에서 지난 수 십년간 여러 측면에서 발표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 특징적인 것들을 몇몇 들어보면, 페브스너(N. Pevsner)의 경우 지방 전통건축물들을 역사적 시대구분 속에서 그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하였으며,⁹⁾ 루도프스키(B. Rudofsky)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민속건축물들을 많은 사진을 통해 입면장식과 그들이 지닌 형식적 특성을 강조-소개하고 있다.¹⁰⁾ 민속학자 헨리 글라시(Henry Glassie)는 지리적인 특성에 바탕을 두어 '민속 주거건축'(folk housing)의 평면유형과 그 구성적 특성 - 방의 크기나 모양, 그들의 배치형식 그리고 문이나 굴뚝, 창문들의 위치 등등 - 을 구조적 분석을 통해 재-제시하고 있으며,¹¹⁾ 시드니 아디(Sidney Addy)는 건축재료의 유용성이나 지형 그리고 기후적 환경배경과 같은 지역 특유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민속건축의 디자인과 그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¹²⁾ 에릭 머셀(Eric Mercer)과 피터 스미스

Ross, 1974, p.130-146. 그리고 Clare Cooper. "The Emotional Content of House / Self Relationships." Priorities for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EDRA, 8, 1978.

7. Carl G. Jung. *Man and His Symbol*.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4.

8. R. M. Rakoff. "Ideology in Everyday Life: The Meaning of the House." Politics and Society, 7, 1977. 그리고 C.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3.

9. Nicholas Pevsner. *A History of Building Typ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1976.

10. B. Rudofsky.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s*.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1964.

11. Henry Glassie. *Pattern in the Material Folk Culture of the Eastern United Stat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68.

12. Sidney Addy. *The Evolution of the English Hous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898.

(Peter Smith)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고려와 함께 다양한 민속건축물들의 시대적 그리고 진화발전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¹³⁾ 로드 라그란(Lord Raglan)은 민속건축물의 형태와 종교적 믿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¹⁴⁾ 폴 올리버(Paul Oliver)의 연구는 건축물들의 상징적 의미와 그 근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는 특히 신화성과 관습성이 어떻게 종교건축물의 건축적 과정에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기능들이 다시 어떻게 거주지역에 상징적 의미들을 제공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¹⁵⁾ 돌로레스 헤이든(Dolores Hayden)은 종교와 정신적인 관계 그리고 민속건축물의 형태 사이의 다양한 연계성을 설명하고 있으며,¹⁶⁾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는 근본적인 결정물(primary determinants)로 보다는 변경 가능요소(modifying factors)로 주거형태에 대한 그의 사회적 이해를 설명하고 있다.¹⁷⁾

위에 소개된 연구들 외에도 민속건축학자 토마스 휴브카(Thomas Hubka)의 ‘민속설계자’(vernacular designer)들이 지닌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그들은 지역의 오랜 전통에 익숙한 수세공이나 목수 혹은 벽돌공으로, 그들의 디자인적 영감은 현대 건축가들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심미적 형태를 만들어 내려는 높은 창조적 의지에서보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깊은 관찰적 감각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

며, 이들이 만들어낸 형태 또한 한정된 시기와 장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재창안된 표준언어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⁸⁾ 다시말해, 상징적 문화형태의 하나로 ‘민속건축’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단지 역사적 측면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토속적인 재료들의 조합된 실재라서기 보다, 지역 특유의 통일된 건물재료나 장식 그리고 유형과 함께 집단의 관습이나 사회-문화적 ‘의지’(will) 등을 표상하기 때문일 것이다.¹⁹⁾ 그래서, 슐츠의 언급처럼 개인적 심미주의의 상업화로 모순이 일상의 질서가 되어버린 지금에, ‘민속건축’은 집단의 지역인들이 그들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다시 그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게되는 유형의 통일된 형식매체였기에,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대한 관습적 응답(habitual responses)과 문화적 조정(cultural adjustment)으로 오랜동안 공유하여온 체계화되어진 형태의 논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아 볼 수 있다.

4. 최소 형태언어로의 ‘Tectonic Form’

시공(時空)의 존재적 한 단면, 즉 상위예술로의 ‘고전적 건축물’(Classical Architecture)에 대한 18세기의 인식처럼,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와 감성을 ‘이성적 구체성’(logos)으로 표상해낸 ‘민속건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단순 직감이나 자아의식의 산물로 받아지기도 하고, 전통적 방법론에 대한 구속이 도리어 설계자의 개인적 창의성을 약화시켜 과거의 시간속에 정체된 단조로운 형태만을 만들어 내었다고 비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통의 설계방법 또한 개인적 해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허용

13. Eric Mercer. *English Vernacular Houses: A Study of Traditional Farmhouses and Cottages*. London: H.M.S.O., 1975. 그리고 Peter Smith. *House of the Welsh Countryside: A Study in Historical Geography*. London: H.M.S.O., 1975

14. Lord Raglan. *The Temple and the House*. New York: Norton, 1964.

15. Paul Oliver. (ed.). *Shelter and Society*. Barrie & Rockliff: The Cresset, 1969.

16. Dolores Hayden. *Seven Americal Utopias : The Architecture of Communitarian Socialism, 1790-1975*. Massachusetts: MIT, 1976.

17. 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9.

18. Thomas Hubka. "Just Folks Designing : Vernacular Designers and the Generation of Form." in D. Upton & J. M. Vlach (eds.) *Common Places: Readings in American Vernacular Architecture*. Athenes, Georgia: University of Georgia, p.426-432.

19. 필자의 ‘의지’(will)라는 용어의 사용은 Nietzsche의 저서 ‘Will to Power’에서 문화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근원적 정수를 ‘의지’로 설명하는 그의 개념을 인용한 것임.

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단지 현대와는 다른 방법에서의 표현일 뿐으로 후브카(Thomas Hubka)는 설명하고 있다.

“민속 설계자는 지역건축의 전통에 의해 한계되어지고 물리적 세계에 의해 구조되어진 기호들과 아이디어들의 유한적 세계로 일을 한다. (반면,) 현대 설계자는 새로운 형태들과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내기위한 무제한적 생산능력을 지닌 추상적 개념들과 아이디어에 대한 무한적 세계로 일을 한다. (이러한) 두 디자인의 의향들이 아이디어들을 교묘히 다루기 위해 추상적 사고에 공통적으로 의존되어 있기는 하나, 현대 설계자들의 무제한적 조합들을 위한 추상적 개념의 사용은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²⁰⁾

비록 민속 설계자들이 지닌 구성형식이 유사한 구조들을 단조롭게 보여 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의 한계 속에서 적지않은 개인적 창의성을 분명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숙련공의 개인적 창의성 또한 전 형태의 창조에서보다 좀더 작은 규모의 ‘디테일’(details)에서 다양한 해석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이 바로 건축물로 하여금 이미 존재하여온 구조들이나 전통과의 이질 보다는 연맥을 이루어내고 동시에 강한 사회적 자기인식의 수단과 예술적 가치를 지니게 하고 있다.

다시말해, 지금의 현대건축은 궁극적으로 대량 산업사회에 의해 직면된 경제적 우선 순위와 대중적 삶 속에서 개개인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문화에 대한 갈망의 두 극단에 처해 있는 듯하다. 특히 의미론적으로 볼때 ‘모더니즘’으로부터 계승된 공업적 생산물의 무언적 요소들과 ‘현대 절충주의’로부터 계승된 공업적 저속상품이 지닌 소비적인 역사기호들이 지금의 현대건축이 내포한 문제이며, 이 경우, Porphyrios에 따르면, 현대건축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비평적 태도는 역사를 언제든지 차용할 수 있는 양식의 보고로가 아니라, 건축물이 표상하는 존재론(ontology)적 의미와 그 구성적 측면에서 재-평가되어야 하며, 유형적 ‘신화’(myth)로서 ‘tectonic form’의 표상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²¹⁾

여기서 민속 설계자들이 지닌 형태언어로서 ‘tectonic form’에 대한 중요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건축과 거주 의 본질성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에서, 다른 하나는 그것이 지닌 ‘신화적 표상성’에서 일 것이다. 특히, 현상학적 방법에 기초한 형태의 최소영역인 ‘tectonic form’ 혹은 ‘detail’에 대한 강조는 ‘건축’(architecture)이란 말의 어원적 이해를 통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거주’(dwelling)에 대한 실존철학적 사색이나 건축 이론가 슐츠(C-N Schulz)의 ‘장소성’(Genius Loci)에 대한 설명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들에 따르면, 건축이란 본디 조형예술의 한 부분으로 심미적이기 보다 의미적인 영역에서 출발되었으며, 사회나 사람들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주’로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거주’는 인간의 존재가 발생하는 ‘장소’에 완전한 소속을 나타내며, ‘장소’란 다시 유형적 출현과 함께 존재적 ‘실체’(thing)를 ‘모으는 것’(gathering)으로 그것이

21. Ibid., p.56. “... the only possible critical stance that architecture could assume today is to construct slowly an ontology of building that would contain a mythical representation of itself. To construct, that is, a tectonic discourse which ... could at the same time represent its very tectonics as myth.” Demetri Porphyrios는 그의 article에서 ‘지방적’(vernacular)이란 말의 이해-설명을 통하여 건축의 가장 핵심적 의미를 ‘사고의 보편성’(chatholicity of reason), ‘효율성’(efficiency), ‘경제성’(economy), ‘내구성’(durability) 그리고 ‘쾌적성’(pleasure)을 내포하는 ‘축조에 대한 시대의 정신사조’(ethos of straightforward construction)로 해석하고 있다. 이 경우 Porphyrios의 ‘축조’(construction)를 통한 인간의 존재적 행위에 대한 강조는 Christian Norberg-Schulz의 건축의 본질성을 ‘거주’(dwelling)로 해석하려는 그의 이해와 유사성을 보이는 듯하나, 건축물의 기본적 구조체들과 그들을 구성시키는 존재적 행위에 대한 강조로 Laugier의 ‘Primitivism’에 Heidegger의 존재론을 혼합한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한다.

20. Thomas Hubka. (1986), p.430.

부여받게 되는 의미성은 어떠한 존재적 ‘실체’를 모으느냐에 의존되어 있다. ‘장소성’의 출현을 도와주는 건축의 본질적 역할 또한 ‘실체’들을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초월을 통하여 모으고 다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것이 표상하게 되는 의미성 또한 어떠한 ‘실체’, 즉 존재적 의미의 단편들을 모으고 재구성하느냐에 의존되어 진다.²²⁾ 여기서 Heidegger의 ‘실체’는 Schulz의 경우 존재적 의미의 단편을 의미하며, 이것은, 다시, 그들에게 건축 형태언어의 최소영역이자 건축이란 어휘의 시원(始原)적 의미를 지닌 ‘tectonic form’을 의미하게 된다 - (architecture의 본래 Latin어원은 architekton 그리고 Greek어원은 architektonikos를 의미한다).

다시말해, ‘민속건축’에 있어 지역의 존재적 의미의 표상은 그들이 모으고 다시 ‘신화적’방법으로 구성시키는 ‘실체’, 즉 ‘tectonic form’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건축이론가 마르코 프라스케리(Marco Frascari)는 건축의 본질적 특성이자 민속설계자들이 지닌 축조적 경향, 즉 시공(時空)을 넘어 단편적인 다양한 ‘ideas’를 수집하고, 그들을 다시 적절한 지역의 ‘신화적 연맥’(mythical context) 혹은 균형적 조화 속에서 존재적 형태언어로 변형시키는 특성을 “해석(진실의 미화화)과 축조(미의 진실화)” - “construing, techne of logos, and construction, logos of techne” - 로 함축 표현하고 있다.²³⁾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 건축가로 우리는 이탈리아의 카르로 스카르파(Carlo

Scarpa)를 들 수 있는데, 그의 전 작품을 통해 ‘tectonic form’에 대한 세밀한 계획설계와 지방 숙련공(local craftsmanship) 사이의 깊은 협조적 관계의 중요성을 입증적으로 볼 수 있다.

5. 신화 그리고 창조적 영감으로의 ‘logos’

‘Tectonic form’의 또다른 중요성으로 그것이 지닌 ‘신화적 표상성’에 대한 이해는 ‘신화’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특성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에서 ‘신화’ 혹은 ‘신화적’이란 말은 본래 철학적 용어로, 서양의 고대문학에 대한 개념의외에 특히 철학의 ‘인식론’에 대한 문제에서는 인간의 정신적 세계의 일원적 형상으로, 그리고 조형예술에 있어서는 인간의 무형적 추상세계를 유형적 형식세계로 치환하는 일종의 의미 표상적인 힘의 정수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었다. 이 경우 ‘민속건축’에 있어 ‘tectonic form’의 중요성 또한 바로 집단의 형이상학적 의식세계가 이러한 형태언어를 통해 유형의 형식체로, 즉 신화적으로 가능하게 표현되어 왔다는데 있을 것이다²⁴⁾ 다시말해, 철학자 언스트 케슬러(Ernest Cassier)는 ‘신화’(myth)를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일원적 힘으로, 즉 그것이 표출되어 보여주는 물질적인 실체들의 다양성 속에서 그 자체를 명언하게 나타내는 해석이 그 자체로 내포되어진 형태”²⁵⁾로 해석하고 있으며, 철학자 지안니 바티모(Gianni Vattimo)는 유럽문화의 역사를 신화의

22. 본 논고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철학자 Martin Heidegger의 실존철학과 건축 이론가 C-N Schulz의 현상학적 건축론에 대한 방대한 해설이 요구되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좀더 자세한 이해는 필자의 대한건축학회지 94년 6월호에 발표된 논문 혹은 Martin Heidegger. Basic Writings. David Farrel Krell (tran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7과 C-N Schulz. Existence, Space & architectur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1 그리고 C-N Schulz. Genius Loci: Towards a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New York: Rizzoli, 1979을 참조.

23. Marco Frascari. “The Tell-The-Tale Detail.” VIA: The Building of Architecture. no.7, p.23-38.

24. 건축의 본질성과 철학에서 오랜동안 논하여온 신화성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고의 주제를 넘어선 또다른중요한 논문의 주제가 되므로, 여기에서는 신화의 의미해석에 대한 몇몇 대표적인 철학자들의 견해를 예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참고서적으로 필자는 철학자 Ernst Cassire와 Hans Blumenberg의 책을 대표적으로 참고문헌에 소개한다.

25. Ernst Cassirer. The Philosophy of Symbolic Forms: volume 2 (Mythical Though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5, p.235. “myth as a unitary energy of the human spirit: as a self-contained form of interpretation which asserts itself amid all the diversity of the objective material it presents.”

세속화 과정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화'의 출현을 현대화에 대립적으로 존재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도리어 현대화의 결론적이며, 최소한 지금까지는 현대화의 궁극적 귀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⁶⁾ 철학자 셸링(F. W. Shelling) 또한 '신화적 형상'(mythical figures)을 우리들 자체의 본질적인 '필요'(necessity)에 의해 생산된 결과로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자율적인 형상"²⁷⁾으로 해석하고 있다. 철학자 한스 브루멘버그(Hans Blumenberg)는 '신화'를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표상적 총체로 해석하며 그것이 지닌 예술적 그리고 문화적 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화들이란 그들이 지닌 화술적 본질로 높은단계의 항구성과 여백적 변화에 대한 동등히 명백한 수용력으로 현저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두 특성이 신화들로 하여금 전통에 의해 계속 전달되어 지도록 하고 있다: 그들이 지닌 항구성은 이야기에서 만큼 예술적이고 의식적인 표상에서 그들의 인식에 대한 매력을 내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변화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와 그리고 그들을 표출하려는 개인적 방법들에 대한 매력을 생산하고 있다.”²⁸⁾

26. Gianni Vattimo. "Myth and the Fate of Secularization." RES, 9, 1985.

27. Ibid. (1955), p.5. 원본을 보기 위해서는 F. W. Shelling. *Einleitung in die philosophie der Mythologie, in Sämtliche Werke* (2 pts. Stuttgart and Augsburg, J. Verlag, 1856), Pt. II, I, 220ff. Cf. p.194ff. "as autonomous configurations of the human spirit."

28. Hans Blumenberg. *Work on Myth*.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90, p.34. 본 인용의 부분은 번역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이해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원문을 참고로 남기도록 하였다. "Myths are stories that are distinguished by a high degree of constancy in their narrative core and by an equally pronounced capacity for marginal variation. These two characteristics make myths transmissible by tradition: Their constancy produces the attraction

여기서 '신화'란 신성한 성구처럼 불변하는 진리나 과거에만 존재하는 비과학적이고 고고학적 원형이 아니며,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세계, 즉 믿음과 이상 그리고 의지의 세계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과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 표상체인 것이다. 지역의 신화성은 그래서 사람들의 내적 그리고 의식적 경험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며, 과거에서 처럼 지금의 예술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이성적 정신세계'(logos)에 대한 형식-특성적 힘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지난 '모더니즘'건축이 만들어 낸 과거의 단절을 통한 무언적 공간형태를 극복하여,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현대적 연맥을 이루어 보려는 지금의 노력은 그것의 형태적 심미성에서 보다 문화적 특수성에 기초한 그들의 해석과 특정한 문제들의 독특한 기술적 해결에서 찾아야 하며, 특히 지역의 신화적 형식성으로 설명 가능한 'tectonic form'과 같은 유형의 물질적 문화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와 함께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상징적 모티프(motif)들의 직접적인 인용과 그들의 회화적 표현효과를 통한 자기인식을 제공하려는 지금의 '포스트모던'(post-Modern) 건축가들의 시도는 너무도 우발적인 현상에 대한 기대이며, 또한 대중전달매체의 광고적 효과에 노출되어 있는 현 사회의 상업적 문화만을 단순히 부추기고 있다. 현대 건축 문화의 문제점이 사람들의 자기인식에 대한 상실 혹은 불확실성에서의 출발이라는 그들의 가정은 현상에 대한 피상적 설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기인식이란 항상 존재인식 이후에 발생하는 정신적인 진행과정이며, 이러한 존재인식은 무엇보다 주어진 문화환경의 조건 속에서 인간의 생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욕구이기 때문이다. 건축 이론가 노버그 슐츠(Norberg-Schulz) 또한 '민속건축,' 특히 그 구성적 형태

of recognizing them in artistic or ritual representation as well [as in recital], and their variability produces the attraction of trying out new and personal means of presenting them."

의 존재적 의미 혹은 신화적 표상이 현대건축가의 디자인적 영감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력에 대한 강조는 부연적 설명의 필요없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논하여 온 ‘민속건축’ 혹은 ‘민속적’이라는 단어의 언급이 가끔은 산업사회 이전의 원시적인 순수함을 찾아 보려는 인상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비록 우리의 눈을 현혹할 만큼 양식적이지는 않지만, 인간이 거주할 공간을 창조한다는 가장 보편적이고 존재적인 정신사조를 표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여기서 ‘민속적의’(vernacular)란 말이 사용이 대략 18세기 ‘낭만적 운동’(Romantic Movement) 이후 그리이스나 로마의 모델, 즉 플라톤(Platon)적이며 피타고라스(Pythagoras)적인 ‘질서와 분량’(tasis and symmetria)개념을 모방하려는 ‘상위예술’(high art)로의 고전주의에 대비되는 ‘하위예술’(low art) 개념의 ‘민속적인 것’(vernacular)이나, 여러 고전양식의 병렬적 혼합을 표현하였던 ‘민속적 고전주의’(Vernacular Classicism), 그리고 루소(Rousseau)의 자연주의 철학에 힘입어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순응하는 건축의 절대언어로 되돌아 가려는 로지에(Laugier)의 ‘원시주의’(Primitivism)를 암시적으로 바탕에 두고 있지는 않다.²⁹⁾ 그것은 도리어 장소나 시간에 의

며 ‘무-절제적’(disorder and excess 혹은 *ataxia and asymmetria*)인 하위형태(low form)로 의미-적용된다. 다시말해, ‘민속의’란 말의 직접적 사용은 ‘낭만주의’(Romanticism)에 와서이며, 유럽의 역사에서 볼 때, 고전적 이론(classical theory)이나 그 실행(practice)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거나 혹은 적용된적이 없는 것에 대한 비-위계적 ‘구성관례’(practices of making)을 의미한다. 하위예술 형식으로서의 이러한 ‘구성관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예술로의 ‘고전적 실행’(classical practice)과 함께 계속 존재하여 왔으며, 특히 18세기 말 예술의 고전적 위계개념이 붕괴된 후에야, 이러한 ‘비-질서적’이며 ‘무-절제적’인 특성으로의 민속적인것들(vernaculars)은 양식(style)으로 보다는 “고전적 규범의 우주적 성격(universal claims of the classical system)”에 대립되는 그래서 예술로의 그 자체 중요성을 내포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연구되었으며, 특정의 낭만적 이론에 따라서는 이러한 가치개념의 분리가 사라지고 서로를 ‘유기적인 일체’(organic wholeness)속에 ‘병렬적’(paratactic)으로 상관시키게도 되었다. 여기서 ‘병렬적’ 구성의 개념은 언뜻보기에 ‘유기적 일체’를 추구한 낭만적 미학개념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 수집되어진 단편들과 예술작품을 통한 그들의 무질서적(disordered) 표현은 유기적 통일성의 결핍보다 예술가의 깊은 무의식적 세계에서 출현되어 분석으로서의 단계를 뛰어넘은 좀더 심오한 조화를 지닌 통일체로 받아들여 졌다.

이러한 민속적인 것(vernacular)의 여러 특성 중, 양식의 혼합화 혹은 ‘병렬적’(paratactic) 구성은 18세기 이전의 예술형태에도 볼 수 있으며, 그 예로, 콜쿤(Alan Colquhoun)은 에릭 아우얼바하(Eric Auerbach)의 저서 ‘모방’(Mimesis)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접속사, 시제의 정확한 변화, 비교급과 종속구문 그리고 분사구성의 풍부한 표현을 볼 수 있는 고전문학의 유형적 특징과 ‘종속적’(hypotactic)이기보다는 ‘병렬적’인 문화구성을 지닌 성경이나 중세문학과 같은 다양한 비교전적 텍스트의 차이, 특히 상당부분 지역적 전통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발전한 초기 기독교 문화가 보여주는 소박한 양식의 혼합 - “the treating of noble subjects in an ignoble setting” - 을 고딕건축양식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비록 중세예술의 한 부분으로 고딕성당의 발전도 고대건축(antique architecture)에서 모방해온 구조형태나 양식, 특히 이들의 고전건축(classical architecture)이 보여 주는 종속적 구조(hypotactic structures)에 대한 모방보다는 병렬적 혼합의 자유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결코 민속적 건물(vernacular building)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북부지방의 기질에 따라 수정-변형되고 조목별로 요약되어 하나의 표상적 체계가 이루어진, 그래서 현학적인 사고-논리와 같이 각각의 구조가 서로 조화롭게 통합되고 위계화 되어진 형태로 보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높은 수준의 고딕 예술은 고전주의(classicism)의 특성을 상당부분 지니고 있으며, 그 예가 샤프트르성당(Charter cathedral)의 비-대칭적 타워의 구성이나 수도사의 공동집합건물의 실용적 증축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콜쿤은 오늘

29. 비록 현재까지 ‘민속의’(vernacular)란 단어의 정확한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오래되거나(old), 자가제의(domestic), 익명의(anonymous), 민중의(folk), 토착의(indigenous), 원시적인(primitive), 시골의(rural), 고유한(not borrowed) 혹은 자발적인(spontaneous)이란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verna’란 말은 본래 ‘본국태생의 노예’(home-born slave)를 지칭하였으며, 이 단어의 라틴 어원인 ‘vernaculus’ 또한 사회, 경제적 이유로 그 주인의 집에 머물며 사는 사람을 지칭하였다. 이러한 하위적 의미가 후에 언어학과 예술분야에 있어 상위형태(high form)로의 ‘고전의’(classic)란 말에 대비되는 고장의(local), 토착의(indigenous) 혹은 토산의(native)란 ‘비-질서적’이

해 폐쇄된 인식과 그로인한 퇴보적 양식모방의 대상으로 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재발견하게 되는 용기(容器)로서, 그리고 민속학자 브룬스킬(R. Brunskill)과 머설(E. Mercer)이 강조하듯이 일시적이거나 격식적이기 보다는 장소의 특성에 의해 조심스럽게 형성된 영속적이며 전통적인 것으로, 실용적 강조보다는 주어진 시간과 장소 속에서 많은 사람의 공통된 사고와 감성을 표상해 내는 구체적인 형태와 형식의 일종으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³⁰⁾ 그래서 '민속건축'이란 현대의 조형예술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개인적 창조외에 바탕을 둔 심미적 표현 형태의 개발과는 달리, 지역의 전통과 그들의 '신화적 문화'(mythic culture)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된 '토착건축'으로, 그것의 'tectonic form'이 구성하는 구조형태(configured form)나 축조방법(construction) 등은 사람들의 관습적인 기호나 바람을 반영하기도 하며, 시간의 연속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생존을 표상하기도 하는 지리적 결정과 습성적 반응의 종합적 산물로 이해 가능하다.³¹⁾ 그래서 건축이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에 미적 감동으로서 지속되어

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양식의 현란함에서가 아니라, 의미를 내포한 형태들의 축조적 행위를 통한 '신화시적'(mythopoetic)인 이야기의 전달에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의 전달 또한 형태의 최소단위인 'tectonic form'이 만들어 내는 '질서성'(order)에 있을 것이다.

니체의 예술에 대한 사색처럼 건축또한 인위적인 허구일 것이나, 그 허구가 단순한 심미적 위락에서가 아니라 우화와 같은 신화적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현실은 사색적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수렴될 수 있으며, 현대건축이 보여주는 많은 모순들이 극복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³²⁾ 오늘날 신화시적인 사고와 사색이 현실에서 실현되어 질 수 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그것이 지금의 경험적 세계를 적절히 다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현대공학에 바탕을 둔 삶의 방식이 진실의 객관성을 모호한 실증주의나 실용주의에 의해 대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신화적'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주하듯이 원시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이 지닌 최고의 가치는 추상적 세계를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질서체로 변이시키는 힘에 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 우리가 지역의 전통성에 대한 현대적 연맥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분명 양식적 기호나 전 형태의 유형에서가 아니라, '민속건축'이 보여주는 집단의식의 표상, 즉 신화적이며 우화적인 표상방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³³⁾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 또한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마지막으로 사회와 예술의 발전적 방법에 대한 칼 막

고전주의적 성격을 통한 '건축의 존재론'(ontology of architecture)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폐쇄된 인식에서의 양식의 혼합화를 표현하는 민속적 고전주의(vernacular classicism)나,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건축의 절대적 언어(universal language)를 찾으려는 로지어(Laugier)의 원시주의(Primitivism)에서 보다, 현학적이고 건축역사에서 볼 때 늦게 발전된 건축의 상위양식을 구성시키는 여러 요소들을 찾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Alan Colquhoun. "Vernacular Classicism." in *Modernity and the Classical tradition*.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89.

30. R. W. Brunskill. *Traditional Buildings of Britain: An Introduction to Vernacular Architecture*. London: Victor Gollanz, 1981. 그리고 Eric Mercer. *English Vernacular Houses: A Study of Traditional Farmhouses and Cottages*. London: H.M.S.O., 1975.
31. James S. Duncan. "Getting Respect in the Kandyan Highlands: The House, The Community, and the Self in a Third World Society." in S. M. Low & E. Chambers (eds.), *Housing, Culture, and Design: A Comparative Perspectiv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9, p.229-252. 그리고 James S. Duncan. *House and Identity*. New York: Kolmes and Meier, 1982.

32. 예술과 허구 그리고 허구와 존재적 진실의 삼각적인 동일개념적 관계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는 니체의 저서, Friedrich Nietzsche. *The Will to Power*. Walter Kaufmann. (trans.) New York: Vintage Books, 1967을 참조.

33. 필자가 사용한 '우화적 표상방법'이란 이탈리아의 문학가 Umberto Eco가 문학에 있어 역사의 가능한 해석방법의 하나로 제시하는 'hermetic semiosis'란 말을 의역적으로 재해석하여 사용한 말로, 좀더 구체적인 이해는 그의 책 Umberto Eco.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을 참조.

스(Karl Marx)의 아래의 글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된다. “예술가에게서 신화론에 대한 상상의 자유를 제외시킬 수 없듯이, 자연에 대한 모든 신화론적 관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회적 발전도 있을 수 없다.”³⁴⁾

34. Karl Marx. Introduc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1857. “There can be no social development which excludes all mythological relation to nature ... and which accordingly claims from the artist an imagination free of mythology.”

參 考 文 獻

1. Hans Blumenberg. *Work on Myth*.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90.
2. A. Buttimer and D. Seamon (ed.). *The Human Experience of Space and Place*. London : Croom Helm, 1980.
3. Ernst Cassirer. *The Philosophy of Symbolic Forms: volume 2 (Mythical Though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5.
4. Alan Colquhoun. "Vernacular Classicism." in *Modernity and the Classical tradition*.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1989.
5. James S. Duncan. *House and Identity*. New York: Kolmes and Meier, 1982.
6. Umberto Eco. *Interpretation and Overinterpre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7. Marco Frascari. "The Tell-The-Tale Detail." *VIA: The Building of Architecture*. no.7, p.23-38.
8. Thomas Hubka. "Just Folks Designing: Vernacular Designers and the Generation of Form." in D. Upton & J. M. Vlach (eds.) *Common Places: Readings in American Vernacular Architecture*. Athenes, Georgia: University of Georgia, p.426-432.
9. O. E. Klapp. *Collective Search for Ident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9.
10. E. C.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1976.
11. Paul Ricoeur. *History and Truth*.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1965.
12. Gianni Vattimo. "Myth and the Fate of Secularization." *RES*, 9, 1985, p.29-35.

Consistency of Tradition and Myth of Place

Re-Thinking of a Finit Representation of Ideas and Vernacular Architecture

Byun, Tae Ho

(Sung Kyun Kwa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Architecture is a shelter for society whose social pattern requires a specific form to accord with its material and spiritual needs. Providing a truly acceptable architecture requires our deeper understanding of cultural tradition - mythic values - not only because myth is an interpreted and configured form of '*thing*' through man's second nature, such as his subjective and objective consciousness - "self-revelation of the absolute"- but also because, in the world of mythical imagination, a fragment of substantial reality - '*thing*'- becomes an equivalent mode to the signification, and emerges as "its independent spiritual form" and "the characteristic force of the *logos*." In this sense, myth of place and myth behind tectonic form are the most essential sources for comprehending people's relationship to the world of inner and conscious experience. The recent efforts of modern architects to achieve cultural continuity should begin with re-interpretation and configuration of the myths behind describable material culture, especially artistic imagination inspired by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yth of place. Myth provide artists with a creative inspiration, as they did in the past.